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김진아

2013년 8월

#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양 순

김 진 아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김진아의 가정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3년 8월

# 목 차

## 국문초록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4
<b>II. 이론적 배경</b> .....	6
1. 행동억제기질 .....	6
2. 또래애착 .....	7
3. 사회불안 .....	9
4.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관계 .....	11
<b>III. 연구방법</b> .....	14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4
2. 측정도구 .....	14
3. 자료분석방법 .....	18
<b>IV. 결과</b> .....	1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
2. 행동억제기술,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일반적 경향 .....	21

3.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 간의 상관관계 .....	23
4.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26
<b>V. 결론 및 제언</b> .....	29
1. 결론 .....	29
2. 제한점 및 제언 .....	31
<b>참 고 문 헌</b> .....	32
<b>Abstract</b>	
<b>부 록</b> .....	41

## 표 목 차

<표 III-1> 행동억제기질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	15
<표 III-1> 또래애착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	16
<표 III-2> 행동억제기질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	17
<표 IV-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0
<표 IV-2>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일반적 경향 .....	21
<표 IV-3> 아동의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상관관계 .....	25
<표 IV-4>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28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진아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양순

이 연구는 사회불안이 나타나는 시기로 추정되는 10대 초반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기질적인 측면인 행동억제기질과 사회환경적 측면인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질적으로 행동억제성향이 높아 사회불안에 대해 취약성을 지니거나 또래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주지역 3개 초등학교 394명(남아 207명, 여아 187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K-RSRI), 또래애착척도,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간의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또래애착 수준이 행동억제기질 및 사회불안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동의 행동억제기질은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과 사회불안은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도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과 사회불안의 하위변인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억제기질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지고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사회불안이 낮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 수줍음, 단순공포는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신뢰감과 의사소통, 소외감은 사회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의 하위변인이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수행불안에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와 수줍음이 정적인 영향을,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과 소외감은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 수줍음, 단순공포, 분리불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소외감이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회피행동 및 사고에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와 수줍음, 단순공포가 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과 소외감은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낮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사회적 회피와 신체화, 단순공포가 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과 소외감은 부적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비주장성에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과 소외감은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제주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세 변인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안이 아동의 행동억제성향의 기질적 취약성에도 영향을 받지만 사회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불안이 예측되거나 이미 사회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대한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아동의 사회불안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기질,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다양한 질병치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 스트레스, 유해환경노출, 약물오남용 등은 인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처음으로 전체 초중고교생을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행동 특성을 검사한 결과 5명 중 1명이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정서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16.3%, 불안이나 우울 등으로 심층관리가 필요한 주의군이 4.5%로 나타났다. 또한 주의군 중에서 자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고위험군이 1.5%로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정서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는 기질적 특성인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BI)를 대표적인 불안장애의 하나인 사회불안장애의 취약성으로서 밝히며 유아기 및 아동기에 발견한 행동억제 양상이 향후 사회불안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기질인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요소이지만 다양한 환경적 변인이나 개인적인 변인에 의해서도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Biederman et al., 2001; 오경자와 양윤란, 2003a, 재인용).

사회불안이 나타나는 시기는 주로 청소년기로 알려지는데 국내의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과 중, 고등학교 집단 간 사회불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있어 사회불안이 나타나는 시기를 초등학교 고학년인 10대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동기 사회불안은 불안이라는 주관적인 불편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회불안에 따른 어려움을 부모나 교사로부터 발견되

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기에 발견되더라도 적절한 개입이나 치료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아동기 사회불안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체계의 부재와 개입이나 치료로부터 방치되는 문제는 아동의 학업기능의 어려움과 교육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인지능력 저하, 학업중단,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문제행동 및 사회적 부적응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요소이다.

한편,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에서 또래에게로 사회적 환경이 확대되고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특히 비슷한 또래와 집단을 형성하며 정서적 교류와 지지를 시도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타고난 기질적 취약성과 상관없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또래들과 함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가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송명자, 1995).

아동기 또래관계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경우에는 외로움, 소외감, 불안감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근래에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등교거부, 집단따돌림 등과 그로 인한 자살 등의 문제는 이 시기의 아동의 또래에 대한 민감성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정수(2006)와 조혜진(2006)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애착수준이 낮은 경우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겪는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질이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또래애착은 주양육자와의 애착에서 확대되어 또래집단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한다. 아동기 초기에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점차적으로 또래애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아동이라도 또래애착의 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불안과 같은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생득적인 행동억제기질을 갖는 아동이라도 원만한 또래애착을 형성한다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10대 초반의 초등학교 고학년인 5학년,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의 행동억제기술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1) 행동억제기질

행동억제란 낯설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서 불안하거나 힘들어하는 등 정서적 불균형을 나타내는 반응양식이나 행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억제 경향이 큰 아동은 활동성이나 반응이 높아 까다롭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사회적인 두려움을 많이 나타내는 등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또한 행동억제 기질이 있는 아동은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당히 움츠러들며 접근하기를 꺼려하고 수줍음과 두려움을 나타낸다(Belsky & Park, 2000; Kagan, 1989).

이 연구에서는 행동억제기질을 긴장, 회피, 두려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생물학적 기질로 낯선 상황이나 사람 등에 대한 심리적 민감성으로이라고 정의하였다.

#### 2) 또래애착

애착은 Bowlby(1958)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말한다. 또한 Ainsworth(1973)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은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과 특정한 개체 사이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을 연령, 신분, 흥미, 성이 비슷한 사람이나 집단에서의 정서적 유대관계으로 정의하였으며 또래관계의 질, 적응력 등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보았다.

### 3)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때 불안을 느끼는 증세로서 '낯선 사람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주시되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또는 대인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되는 두려움'을 말한다.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은 사회불안과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사회공포증은 사회불안보다 임상적인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심각한 증상을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 연구에서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적응력이 떨어지는 심리적 반응으로, 친숙하지 않는 사람이나 평가받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겪는 증상이라고 정의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행동억제기질

기질은 출생 후 1년 사이에 형성되거나 식별되는 발달적 특성의 하나로 정서적 표현양식과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양상의 차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성격의 개인차를 말한다. 기질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결정되는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보고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질은 생득적이며 지속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질의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송명자, 1995).

행동억제는 익숙하지 않은 자극에 대한 민감성, 처벌, 좌절적인 무보상과 관련된 행동체계로서 처벌이나 위협과 같은 불안 관련 단서들에 반응하여 불안을 경험하며 현재의 행동을 멈추고 다른 위협이나 위협 단서들을 찾기 위해 환경을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동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Gray, 1982; 박정희 2009, 재인용).

행동억제기질이 있는 14-31개월 영유아들은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울거나 사회적으로 회피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그리고 행동억제기질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 낯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높은 불안과 공포반응을 보인다고 한다(Kagan, 1998; Rezinick, Hegeman, Woods, & Jacobs, 1992; 오인경, 2009, 재인용). 또한 행동억제기질을 지닌 유아 및 아동의 경우 쉽게 외부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심박률, 동공팽창률, 근육긴장도 등이 증가한다는 등 행동억제와 관련된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연구도 이뤄졌다(Asendorpf, 1990; Kagan, Reznick & Snidman, 1987).

행동억제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낯선 것에 대하여 나타내는 두려움의 반응 특성이 초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처음 시

작되었으며, Kagan(1989)의 연구에 의해 촉발되어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박수연, 2004; 김지원, 2009).

Kagan과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동억제 특성은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21개월 때 행동억제가 높게 나온 영아들은 7.5세경이 되었을 때에도 대다수가 낮은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철회, 회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행동억제가 높은 경우 불안과 걱정의 증상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Muris et al., 1999; Kagan et al., 1988; 오윤희, 2006, 재인용).

## 2. 또래애착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나 즐거움을 예측하게 해준다. 아동은 또래집단에 어울림으로써 또래와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지각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아동들은 또래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일반적으로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집단 쪽에 더 동조하는 것이 아동후기 또래관계의 특징이다(고영숙, 2002). 또래집단은 연령, 신분, 흥미, 성이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집단으로 ‘우리’라는 정서적 공감의 형성되어 있으며, 또래만의 규칙과 조직이 있다. 이주리(1994)는 또래관계를 통해 아동은 자신을 새로이 인식하고 또래집단에서 인기를 얻는데 관심을 가지며, 교체하는데 있어서 융통성, 순응성 및 사회적 태도를 발달시키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Bowlby(1982, 1979)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애착이라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애착이란 어머니와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가진 유아와 어머니 간의 정서적 유대라고 보고 있으며 이 유대가 아동의 자기 개념 및 사회에 대한 관점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노향희, 2008).

애착은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눌 수 있다. 애착 대상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를 안정 애착이라 하고 애착 대상에 대해 강렬한 애정과 의존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민성, 경계 등의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유아기의 안정된 애착의 형성은 자신감, 호기심,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향성을 보이고, 도전적 과제나 좌절을 잘 참아내며, 주변세계에 대한 신뢰감으로 확대된다고 하였다(정옥분, 2002; Holmes, 1992).

Bowlby는 후기 연구에서 초기 애착단계의 표상이 쉽게 변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을 주장하였다. 내적작동모델이란 영아가 주양육자와의 반복되는 상호작용 경을 통해 자기, 타인,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형성한 표상을 말한다.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형성된 자기-타인 표상은 자기와 세계에 대한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고 이후의 사회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끌며 타인의 행동을 예측,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초기의 어머니 등의 주양육자와의 애착이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형성에 미치는 전생애 발달경로의 바탕으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은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애착을 바탕으로 신뢰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대인관계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걸음마기 이후에 성인과의 상호작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의 증가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이유로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주양육자인 부모에게서 또래집단이나 교사로 상호작용의 대상을 확장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강문희, 신현옥, 정옥환, 정정고, 2004).

초등학교에 접어들면서 아동은 애착관계의 대상을 주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또래로 확대되는데, 이러한 전이는 애착인물로서 부모에 대한 의존의 감소를 의미하며, 위계적 애착관계(양육자가 주로 돌보는 관계)로부터 수평적 애착관계(동반과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로 변형을 내포한다(최옥현, 2006).

김옥경과 김윤경(2001)은 또래에게서 거부된 집단의 아동이 외로움과 회피수준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에게서 거부되는 아동의 경우 비주장성과 낮은 상호작용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정도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장하는 정도가 약할수록 또래에게 거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권지은(2002)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청소년들에게 또래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지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또래애착의 수준이 아동 간의 정서적 유대나 수용, 사회적 기술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또래애착은 아동이 접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및 주변상황과 자기 스스로에 대해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요소임을 시사한다.

또래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며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또래애착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사회불안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은 임상적 진단기준에 따른 정도의 차이를 갖는데, Otto와 그의 동료들(200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공포증 환자의 80%가 18세 이전에 사회불안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DSM-IV에서 사회공포증은 불안장애의 하위 범주 중 하나로 일반인들이 사회공포증에 걸릴 유병률은 3-13%라고 보고되며, 최초 나타나는 시기는 11.3-12.3세 사이로 알려져 있다(Last, Perrin, Hersen, & Kazdin, 1992; 박정희, 2006, 재인용).

사회공포증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199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공포증이 처음 나

타나는 연령은 17-19세까지가 32%로 가장 많았고, 14-16세까지가 21.7%로 분포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과 중, 고등학교 집단 간 사회불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불안의 발생시기를 초등학교 고학년인 10대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공포증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가장 흔한 불안장애 중 하나로 사회적, 학업적 기능에 손상을 미치며, 또래와의 우정 및 친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rhulst, Van der Ende, Ferdinand, & Jasius, 1997; LaGreca & Lopez, 1998; Rubin, LeMare, & Lorkis, 1990; 양윤란, 2004, 재인용).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불안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불안이 학교 거부나 기타 약물 남용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 사회불안의 정도가 사회공포증의 임상적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회불안 자체의 두려움, 불안, 긴장 등의 증상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Alloy et al., 1990; Beidel, 1991).

우리나라에서는 문혜신(2001)의 연구에서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이 임상적인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아동과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이나 또래관계 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회불안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학업중단,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문제행동 및 사회적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 사회불안은 불안이라는 주관적인 불편감에서 비롯되며 극단적인 행동특성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로부터 아동의 어려움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호자의 민감한 관심과 조기발견 및 개입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기의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성인이나 청소년기에 비해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초기 사회불안 나타나는 시기로 추정되는 10대 초기의 사회불안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4.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관계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동억제기질은 사회불안의 발생경로에서 대표적인 취약변인으로 입증되었다. 행동억제기질과 불안증상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8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2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5세경에 수동적이고 두려움을 보이고 친숙하지 못한 환경을 회피하려고 했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혀졌다(Schwartz, Snidman & Kagan, 1999; 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오윤희, 2006, 재인용). 또한 회고적 자기보고식 행동억제척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고했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초등학생 시기에 사회적 회피가 높았던 것으로 회상했던 청소년들은 행동억제기질이 낮은 집단보다 4-5배 가량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Degnan과 Fox(2007)의 연구에서는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이 밀접하게 연관된 심리적인 변인으로 가정하였고 국내의 오경자와 양윤란(2003b)는 행동억제기질이 청소년기 사회불안을 지속적하도록 기여하는 변인임을 추적연구를 통해 밝혔다. 최미미와 조용래(2008)의 연구와 허유정(2002)의 연구에서도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과 사회공포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 행동억제가 사회공포증의 원인 및 발생과정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기질적 특성으로서 아동, 청소년기의 여러 불안장애에 대한 일반적 취약성 요인이라는 주장을 지지해준다(Mick & Telch, 1998). 이는 영유아기부터 행동억제성향을 보였던 경우 아동·청소년기 성장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른 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은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행동억제기질을 타고났더라도 부모의 양육태도, 보육의 질, 교육경험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환경적 변인에 의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도현심, 박성연, 윤중희, 정옥분, Rubin, 2003). 행동억제기질에 대한 사회불안은 낮은 상황에 한정되며 친숙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사회기술을 보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밝혀내기도 하였다.(Asendorpf, 1993; Kagan et al., 1997).

박정희(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설명하고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조절효과에 대해 밝히는 등 선행연구들에서는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사회불안의 발생경로에서 다른 변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그 외에 김지원(2009)은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하위변인이 주도성이 수행불안에 대해 중재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효주(2009)는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과보호'가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중재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불안이 행동억제기질과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아 사회불안으로 발생할 많으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계속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관계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행동억제성향이 높은 아동들을 또래간의 사회적 행동이나 학교에서의 적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Fox et al., 1995; Kagan et al., 1984). 그리고 양윤란(2004)은 또래관계기술을 사회기술의 하나로 보고 이러한 기술의 부족은 아동, 청소년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경험의 가능성을 높이고 부정적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또래관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래관계기술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기질적인 취약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로 인해 아동의 사회불안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혜진(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밖에 불안을 비롯한 심리적 부적응이 또래애착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지원(2009)과 오경자와 양윤란(2003)는 사회기술로서의 또래관계기술이 행동 억제기질과 사회불안과의 영향력을 검증했는데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인 또래애착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이제까지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미치는 변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일정 수준의 인지적 발달을 보이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회불안의 발생시기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기 사회불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고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12일까지 3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15일간 실시하였다. 제주 시내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대표 관계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여 학급단위로 회수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500부 중 453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9부를 제외한 총 394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K-RSRI)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Reznick, Hegeman, Kaufman, Woods와 Jacobs(1992)의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a)의 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에서 아동의 행동억제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 시기에 대해 기억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30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 점수는 30점-150점의 범위를 가진다. 행동억제성향

이 높은 아동일수록 이 척도의 총점이 높게 나타난다.

오경자와 양윤란의 연구에서 본 척도에 대한 변인분석을 실시하여 총 5가지 변인인 사회적 회피, 수줍음, 신체화, 단순공포, 분리불안으로 구성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전체 .73, 사회적 회피 .73, 수줍음 .67, 신체화 .64, 단순공포 .64, 분리불안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가 실시한 신뢰도 검사결과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77이고 하위변인의 분포는 Cronbach's  $\alpha$  계수 .69~.75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의 문항 구성 및 문항번호,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신뢰도
사회적 회피	10,21,22,23,25,28,30	.71
수줍음	15,17,18,19,24,29	.69
신체화	1,2,3	.69
단순공포	5,8,9	.68
분리불안	10,11,12	.75
행동억제기질	1-30	.77

## 2) 또래애착척도

Armsden과 Greenberg(1987)는 10~20세를 대상으로 부모와 또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IPPA(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개발하였다. 그 이후 1991년 Armsden과 Greenberg가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우리나라에서 옥정(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5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로 평정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는 25~125점 범위 내에 있다. 이 척도의 평균값이 클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변인은 신뢰감(trust) 10문항, 의사소통(communication) 8문항, 소외감(alienation)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처리 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채점 후 사용하였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전체 .92, 노향희(2008)와 이정수(2006)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0과 .8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 사용된 또래애착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92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의 분포는 Cronbach's  $\alpha$  .66~.88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애착 척도의 문항구성 및 문항번호,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II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 또래애착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신뢰도	전체
신뢰감	2,5*,7,12,14,15,17,18*,19,24	.83	
의사소통	1,3,6,8,11*,13,22*,23*	.88	.92
소외감	4*,9*,10*,16,20,21,25	.66	

\* 역채점 문항

### 3)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LaGreca와 Stone(1993)이 개발한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 Revised: SASC-R)와 Beidel 등(1995)이 개발한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를 통합하여 문혜신, 오경자(2002)가 하나로 번안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는 총 40문항이고 5점 리커트척도로 평정되며 총 점수는 40-200점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 행동 및 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이라는 5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된다. 문혜신과 오경자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전체 .95로, 하위변인별로는 .79-.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92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의 Cronbach's  $\alpha$ 계수 분포는 .66~.88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불안 척도의 문항구성 및 문항번호,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III-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3>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구성과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신뢰도	전체
수행불안	6,7,9,11,12,13,14,18,20,36	.8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7,29,31,32,34,37,38,39,40	.94	
회피 행동 및 사고	1,2,3,5,8,10,15,16,19	.85	.96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4,17,30,33,35	.75	
비주장성	21,22,23,24,25,26,28	.85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 일반적 사항 성별의 경우에 남자 52.5%, 여자 47.5%로 남자의 비율이 절반 넘게 나타났다. 학년을 살펴본 결과 6학년 51.3%, 5학년 48.7%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65.7%, 고등학교 졸업 23.9%,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5.6%, 대학원 이상 4.8% 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어머니 학력을 살펴본 결과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24.4%,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중퇴 8.9%, 대학원이상 6.3%, 중학교졸업이하 2.3% 순으로 높았다. 부모 학력의 경우에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양부모가족 67.8%, 한부모가족 17.8%,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가족 12.2%로 나타났다. 조손가족라는 응답은 1% 미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족형태의 경우에 양부모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이 절반 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제자매수를 살펴본 결과 2명 34.5%, 1명 32.7%, 3명 19.5%, 없음 10.2%, 4명 이상 3.0%으로 나타나 1명 또는 2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집단의 비율이 절반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33.2%, 400만원이상 26.6%,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9.5%, 100만원 미만 10.7%,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9.9% 순으로 높게 나타나 소득 300-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집단의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종교별로는 무교 53.0%, 불교 22.8%, 기독교 10.9%, 천주교 8.6%, 기타 4.6%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분포는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통계학적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07	52.5%
	여자	187	47.5%
학년	5학년	192	48.7%
	6학년	202	51.3%
부학력	고등학교	94	23.9%
	전문대학 /대학교 중퇴	22	5.6%
	대학교 졸업	259	65.7%
	대학원 이상	19	4.8%
모학력	중학교 이하	9	2.3%
	고등학교	96	24.4%
	전문대학 /대학교 중퇴	35	8.9%
	대학교 졸업	229	58.1%
가족형태	대학원 이상	25	6.3%
	양부모가족	267	67.8%
	한부모가족	70	17.8%
	3세대가족	48	12.2%
	조손가족	2	0.5%
형제자매 수	기타	7	1.8%
	없음	40	10.2%
	1명	129	32.7%
	2명	136	34.5%
	3명	77	19.5%
소득	4명이상	12	3.0%
	100만원 미만	42	10.7%
	10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39	9.9%
	20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77	19.5%
	300만원이상 ~ 400만원미만	131	33.2%
종교	400만원 이상	105	26.6%
	없음	209	53.0%
	기독교	43	10.9%
	천주교	34	8.6%
	불교	90	22.8%
합계	기타	18	4.6%
	합계	394	100.0%

## 2. 아동의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일반적 경향을 <표 IV-2>에 제시하였다.

<표 IV-2>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일반적 경향  
(N=394)

	평균(M)	표준편차(SD)
사회적 회피	2.80	.78
수줍음	1.80	.65
신체화	1.55	.65
단순공포	1.83	.89
분리불안	1.57	.81
<b>행동억제기질</b>	<b>2.00</b>	<b>.39</b>
신뢰감	3.22	.79
의사소통	3.27	.89
소외감	3.74	.71
<b>또래애착</b>	<b>3.37</b>	<b>.73</b>
수행불안	1.66	.7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81	.95
회피행동 및 사고	1.32	.48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1.68	.76
비주장성	1.72	.76
<b>사회불안</b>	<b>1.62</b>	<b>.61</b>

조사 대상자들의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동억제기질 평균 2.00점(SD=.39), 또래애착 3.37점(SD=.73), 사회불안 1.62점(SD=.61)으로 또래애착이 다른 변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으나 전체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행동억제기질 하위변인의 평균점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회피의 경우에 2.80점(SD=.78), 단순공포 1.83점(SD=.89), 수줍음 1.80점(SD=.65), 분리불안 1.57점(SD=.81), 신체화 1.55점(SD=.65)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행동억제기질 중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맺기를 꺼리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회피가 다른 하위변인에 비하여 조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불편감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 두통, 신경통 등과 같은 신체증상으로 발현되는 신체화 증상이 다른 하위변인에 비하여 조금 낮은 편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의 하위변인을 보면, 소외감 3.74점(SD=.71), 의사소통 3.27점(SD=.89), 신뢰감 3.22점(SD=.79)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또래애착 중 소외감변인이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조금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을 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81점(SD=.95), 비주장성 1.72점(SD=.76),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1.68점(SD=.76), 수행불안 1.66점(SD=.70), 회피행동 및 사고 1.32점(SD=.48)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사회불안 중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이나 표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변인이 다른 변인에 비하여 조금 높은 편이었으며 회피행동 및 사고는 다른 변인에 비하여 조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 3.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 사이의 상관관계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과 사회불안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총점의 상관관계는  $r=.64$ 의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1$ ).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5가지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수행불안  $r=.58$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57$ ,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r=.54$ , 비주장성  $r=.52$ , 회피행동 및 사고  $r=.50$ 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낯선 상황이나 사람 등에 대한 심리적 민감성인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행동억제기질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행동 및 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애착과 사회불안의 총점의 상관관계는  $r=-.19$ 의 부적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또래애착과 사회불안의 5가지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20$ , 수행불안  $r=-.17$ , 회피행동 및 사고  $r=-.16$ , 비주장성  $r=-.12$ ,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r=-.11$ 에서 부적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애착이 사회불안 의 5가지 하위변인에 모두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애착의 정도가 낮을수록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행동 및 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의 총점의 상관관계는  $r=-.37$ 로 부적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의 3가지 하위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신뢰감  $r=-.28$ , 의사소통  $r=-.33$ , 소외감  $r=-.41$ 로 모두 유의수준  $p<.01$ 에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경우 전반적인 또래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예측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래애착과 행동억제기질의 5가지 하위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또래애착이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 $r=-.50$ ,  $p<.01$ )와 수줍음( $r=-.13$ ,  $p<.05$ )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행동억제기질 중 사회적 회피와 수줍음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3> 행동억제기질, 또래예착, 사회불안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b>행동억제기질</b>																
1. 사회적 회피	1															
2. 수줍음	.18**	1														
3. 신체화	.02	.18**	1													
4. 단순공포	.118*	.40**	.16**	1												
5. 분리불안	.17**	.50**	.19**	.43**	1											
6. 총점	.64**	.71**	.37**	.56**	.61**	1										
<b>또래예착</b>																
7. 신뢰감	-.46**	-.03	-.02	-.01	.03	-.28**	1									
8. 의사소통	-.51**	-.08	-.07	.01	.02	-.33**	.90**	1								
9. 소외감	-.32**	-.28**	-.18**	-.22**	-.16**	-.41**	.45**	.53**	1							
10. 총점	-.50**	-.13*	-.09	-.06	-.03	-.37**	.93**	.96**	.69**	1						
<b>사회불안</b>																
11. 수행불안	.31**	.66**	.11*	.32**	.32**	.58**	-.10	-.14**	-.24**	-.17**	1					
1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25**	.56**	.20**	.39**	.41**	.57**	-.06	-.12*	-.40**	-.20**	.61**	1				
13. 회피 행동 및 사고	.25**	.49**	.15**	.32**	.31**	.50**	-.09	-.12*	-.25**	-.16**	.77**	.54**	1			
14.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28**	.54**	.11*	.34**	.32**	.54**	-.02	-.06	-.24**	-.11*	.68**	.71**	.63**	1		
15. 비주장성	.26**	.56**	.10	.31**	.35**	.52**	-.02	-.06	-.28**	-.12*	.68**	.67**	.64**	.72**	1	
16. 총점	.31**	.67**	.16**	.40**	.41**	.64**	-.08	-.13*	-.35**	-.19**	.88**	.86**	.81**	.85**	.86**	1

\*p<.05 \*\*p<.01 \*\*\*p<.001

#### 4.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4>와 같다.

전체적으로 행동억제기질은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또래애착은 사회불안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의 전체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회피, 수줍음, 단순공포가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이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식의 설명력은 51%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조사한 결과가 10을 넘는 변수가 발견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변수는 없었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수행불안에 대해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회피와 수줍음이 수행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 소외감이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수행불안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식의 설명력은 47%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조사한 결과 10을 넘는 변수는 없었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 수줍음, 단순공포, 분리불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소외감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식의 설명력은 42%이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되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회피행동 및 사고에 영향에 대해서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 수줍음, 단순공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과 소외감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식의 설명력은 28%였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행동억제기질의 하

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 신체화, 단순공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 소외감 변인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본 회귀식의 설명력은 34%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조사한 결과 10을 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하위변인인 비주장성에 대해서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 소외감에서 부적 영향을 보였다. 그 외의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회귀식의 설명력은 35%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조사한 결과 10을 넘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		하위변인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행동 및 사고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행동 억제 기질	사회적 회피	.15	.20***	.18	.20***	.14	.11*	.10	.16**	.21	.22***	.18	.19***
	수줍음	.50	.53***	.67	.62***	.52	.36***	.28	.38***	.51	.44	.52	.45
	신체화	.01	.01	-.01	-.01	.06	.04	.03	.04	.01	.01**	-.03	-.03
	단순공포	.08	.11**	.04	.07	.13	.12**	.07	.12*	.10	.12**	.05	.06
	분리불안	.03	.04	-.04	-.05	.13	.11*	.01	.02	.01	.01	.05	.05
또래 애착	신뢰감	-.05	-.06	-.01	-.01	-.15	-.12	-.01	-.01	-.09	-.09	-.04	-.04
	의사소통	-.02	-.04**	-.01	-.02*	-.01	-.01	-.01	-.02*	-.04	-.05**	-.10	-.12**
	소외감	-.13	-.52**	-.01	-.01**	-.35	-.26***	-.05	-.07**	-.09	-.08*	-.17	-.16**
상수		.34		-.09		.79		.49		-.12		.34	
Adj R <sup>2</sup>		.51		.47		.42		.28		.34		.35	
F		52.19***		43.87***		36.00***		19.99***		26.55***		27.62***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는 아동기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파악하고,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제주도내 3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3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행동억제기질, 또래애착, 사회불안의 일반적 경향은 또래애착 수준이 사회불안과 행동억제기질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 사회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행동억제기질은 사회불안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또래애착과 사회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회불안의 수행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회피행동 및 사고 모든 하위변인이 정적 상관을 보이며, 또래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도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전 영역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행동억제기질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지고,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서 관련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김지원,2009; 장효주,2009; 양주경, 2007; 양윤란, 2003).

셋째,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행동억제기질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회피, 수줍음, 단순공포는 사회불안 전체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중 신뢰감과 의사소통, 소외감은 사회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의 하위변인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수행불안에는 사회적 회피, 수줍음이 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과 소외감이 부적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2)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 수줍음, 단순공포, 분리불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소외감이 부적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회피행동 및 사고에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 회피와 수줍음, 단순공포가 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과 소외감이 부적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낮은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사회적 회피와 신체화, 단순공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과 소외감은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사회불안의 하위변인 중 비주장성에 대해서는 행동억제기질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회피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과 소외감은 부적의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사회불안의 예측변인으로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박정희(2004)의 연구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해주는 것이다(김지원, 2009; 최미미와 조용래, 2008; 양주경, 2007; 노향희, 2008; 이정수, 2006; 조혜진, 2006).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의의는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의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기질의 정적인 영향과 또래애착의 부적의 영향을 바탕으로 행동억제성향의 기질적인 취약성을 지니거나 또래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 초등학교 3개교 5~6학년 학생으로 이 연구를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그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척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또래평정, 면접, 부모나 교사의 보고, 관찰 등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기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로서 또래애착 외에 부모통제감이나 학교생활적응 등 성인기와 청소년기에 밝혀진 변인들과 그 밖의 다른 변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억제기질과 또래애착과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행동억제성향의 기질적 취약성을 보이는 아동과 또래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문희, 신현옥, 정옥환, 정정옥 (2004). 아동발달. 교문사.
- 고영숙 (2002). 또래환경 및 또래관계의 질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2002).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2), 65-82.
- 김지원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 하은혜, 조유진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0(6), 535-548.
- 노향희 (2008). 애착, 정서표현갈등, 그리고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혜신·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2), 429-444.
- 미국정신의학회 (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 하나의학사.
- 미국정신의학회 (2008). 간편 정신장애진단 통계편람(DSM-IV-TR-Mini-D). 학지사
- 박수연 (2004). 행동억제연구의 최근 동향,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논집, 2004(2), 141-150.
- 박정희 (2009). 아동기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양윤란 (2004). 또래관계기술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 자기제시기  
대와 자기통찰의 매개 중재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주경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기제: 행동억제기질, 가족환경, 역기능  
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자 · 양윤란 (2003a).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  
상, 22(3), 557-576.
- 오경자 · 양윤란 (2003b).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  
6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 577-597.
- 오경자 · 양윤란 (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  
학년 학생용.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4, 961-971.
- 오윤희 (2006). 사회불안장애 발병변인의 구조적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오인경 (2009). 부모양육행동과 행동억제기질이 청소년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  
향 : 정서조적방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사회공포증에 관한 10년간의 임상연구. 신경정  
신학회, 33(2), 305-312.
- 이은혜, 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  
구. 아동학회지, 20(2), 225-245.
- 이정수 (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 (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효주 (2009).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기술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정옥분, Rubin, K.,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71-88.
- 조용래 (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8(1), 17-36.
- 조혜진 (2006).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우울, 불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미, 조용래 (2008).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576-577.
- 최옥현 (2006).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lloy, L. B., Kelly, K. A. Mineka, S., & clement, C. M. (1990). Comorbidity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 A helplessness-hopelessness perspective. In J. D. Master, C. Cloninger, & R. Robert, Comorbidity of mood anxiety disorders (pp. 499-54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d ed.). Washington, DC: Author.
- Ainsworth, M. D. S (1973).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1-94.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sendorpf, J. (1993). Abnormal Shyness in Children. *Journal i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ued Discinplines, 34*, 1069-1081.

- Asendorpf, J. (1993).
- Beidel, D. C., Hirshfeld Becker, D. R., Rosenbaum, J. F., Herot, C., Friedman, D., Snidman, N., et al(2001). Fu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0), 1673-1679.
- Beidel, D. C. (1991). Socia; Phobia and overanxious disorder in social-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545-552.
- Belsky, J., rah, J-H., & Pack, S-Y. (2000). Exporing reciprocal parent and child effects in the case of child inhibition in US and Korean sam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338-347.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 From age three to fifteen. *Child Development*, 66, 55-68.
- Degn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 Multiple levels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729-746.
- Fox, N. A., Rubin. K. H., Calkins, S. D., Marshall, T. R., coplan, R. J., Porges, S. W., Long, J. M., & Stewart S. (1995). Frontal activationasymmetry and social competenxe at four years of age. *Child Development*, 66, 1770-1784.
- Hayward, C., Killen, J., Kraemer, H., & Taylor, C.(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721-726.
- Holmes, J. (1992).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en and New York: Routledge.
- Reznick, J. S., & Snidman, N. (1999). Early childhood predictors of adult

- anxiety disorders. *Biological Psychiatry*, 46, 1536-1541.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8-174.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Gibbon, S. J., & Johnson, M. (1988).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580-1589.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7). The Psych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459-1473.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 Coll, C. (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La Greca,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hip and friendship.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83-94.
- Last, C., Perrin, S., Hersen, M., & Kazdin, A. (1992). DSM-III-R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1070-1076.
- Mick, M., & Telch, M.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Muris, P., Merckelbach, H., Wessel, I., & M. van de Ven. (1999). Psychopathological correlates of self-reported behavioral inhibition in normal childre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575-584.
- Otto, M. W., Pollack, M. H., Maki, K. M., Gould, R. A., Worthington, J. J., Smoller, J. W., et al. (2001). Childhood history of anxiety disorders among adults with social phobia: Rates, Correlates, and comparison with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14, 209-213.

- Rezinick, J. C., Hegeman, I. M., Kaufman, E. R., Woods, S. W., & Jacobs, M. (1992). Retrospective and concurrent self-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their relation to adult mental heal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301-321.
- Rubin, K. H., Lemare, L.,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r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217-249)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wartz, C.,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1008-1015.
- Verhulst, F. C., van der Ende, J., Ferdinand, R. F., & Jasius, M. C. (1997). The prevalence of DSM-III-R diagnoses in a national sample of Deutch adolescents. *Archives of Genenral Psychiatry*, 54, 329-336.

## Abstract

### **The Effect of Children's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and Peer Attachment on Social Anxiety**

**Kim Jin Ah**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Dr. Kim Yang So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social anxiety in terms of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and social environment, targeting 5th grade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re subject to the early period of teenagers, which is estimated to be a time when social anxiety emer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anxiety due to the high inclination of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or have difficulty in establishing peer attachment with basic data, required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anxiety and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programs.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this study used measurement tools of the Korean Version of Retrospective Self-Report of Inhibition (K-RSRI), peer attachment scale, and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targeting 394 elementary school students(male: 207, female: 187) in three elementary schools of Jeju. As an analysis method,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conduc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on the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peer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whil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children's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and peer attachment on social anxiety.

The summariz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peer

attachment, and the general tendencies of society anxiety reveal that peer attachment level appeared to be a little higher than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and social anxiety level but the differences were insignificant.

Secon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of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peer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demonstrate that the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peer attachmen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The sub-variables of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ub-variables of social anxiety, while the sub-variables of peer attachmen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both the sub-variables of peer attachment and the sub-variables of social anxiety. That is, as a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was higher, social anxiety increased, while as peer attachment was lower, social anxiety was reduced.

The results of the effect of children's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and peer attachment on social anxiety demonstrate that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and peer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anxiety. Among the sub-variables of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social avoidance, shyness, simple fear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anxiety, while among the sub-variables of peer attachment, trust and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social anxiety.

The sub-variables of children's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and the sub-variables of peer attachment had an effect on the sub-variables of social anxiety. In terms of performance anxiety among the sub-variables of social anxiety, social avoidance and shyness among sub-variables of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anxiety, and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among the sub-variables of peer attach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performance anxiety.

In terms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mong the sub-variables of social anxiety, social avoidance, shyness, simple fear, and separation anxie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hile alienation among the sub-variables of peer attach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 terms of the avoidance behaviors and thinking among the sub-variables of social anxiety, social avoidance, shyness, simple fear among the sub-variables of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avoidance behaviors and

thinking, while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among the sub-variables of peer attach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avoidance behaviors and thinking.

In terms of the fear of unfamiliar things among the sub-variables of social anxiety, social avoidance and somatization, and simple fear had an effect on the fear of unfamiliar things, while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among the sub-variables of peer attach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ear of unfamiliar things.

In terms of non-assertiveness among the sub-variables of social anxiety, social avoidance among the sub-variables of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non-assertiveness, while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among the sub-variables of peer attach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non-assertivenes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peer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targeting 5th grade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ju reveal that these three variables were correlated and children's behavior inhibition temperament and peer attachment would have an effect on social anxiety. This reveals that social anxiety can receive an effect of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the temperament vulnerability of children's inhibition inclination. Therefore, if the social anxiety of children is predicted and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for children who suffer from social anxiety are created and applied,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social anxiety.

# 부 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한 시간에 질문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여러분과 가장 일치되는 표현이나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체크하시면 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오직 연구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항목들을 신중하게 읽은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아동심리전공

지도교수 김양순

연구자 김진아

1. 다음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때까지 어떤 행동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고 과거에 나는 얼마나 이런 행동이나 느낌을 가졌는지 V로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 다	약간 그렇 다	보통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아파서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아파서 양호실에 가는 적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머리카락이나 배가 잘 아팠다.	①	②	③	④	⑤
4. 약물을 자주 썼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둠을 무서워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부모님이 항상 자기 전에 침대 밑이나 옷장을 확인해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잠자리에 들 때면 동물인형이나 담요, 장난감을 꼭 안고 잤다.	①	②	③	④	⑤
8. 개나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을 무서워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잘 모르는 동물을 길거리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만나면 두려워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유괴를 당할까봐 아니면 부모님과 헤어지게 될까봐 걱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어린시절 부모님이 처음 만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외출할 때면 긴장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이 외출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 때면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을 까봐 걱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먹어보지 않던 새로운 음식도 잘 먹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에 처음 가거나 학년이 바뀌어 처음 등교하는 날에는 보통 겁을 먹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나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아픈 척 한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교단 앞으로 불러 나갈 때면 긴장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답을 알고 있더라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긴장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발표를 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때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약간 그렇 다	보통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21.	쉬는 시간에는 반에서 중심이 되는 아이들과 잘 놀았다.	①	②	③	④	⑤
22.	여럿이 모여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 또래의 새 친구 만나기를 좋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4.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잠기거나 떨리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인기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6.	알레르기나 불면증, 변비 때문에 병원에 가야하거나 고생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7.	불을 켜 놓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8.	여럿이 노래를 부르거나 노는데 잘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9.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30.	친구나 가족에게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이야기 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의 물음에서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또는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V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식당이나 매점과 같이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야 할 때면 땀이 나거나 가슴이 쿵쿵 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잘 모르는 아이와 같이 있게 되면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은 너무 두려워서 일찍 집에 가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6.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紧张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몇 분 이상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학교 연극이나 합창, 노래나 무용 발표회에 참여할 때면紧张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디엔가 가야 할 때면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야 할 때면紧张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관심이 나에게 집중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떤 집단이나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발표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비교적 많은 사람이 모인 집단에 같이 끼어들어가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일찍 자리를 뜬다.	①	②	③	④	⑤
17.	잘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걸 때 겁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8.	교단에 나가 반 전체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9.	친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수줍음을 탄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가게에서 물건을 바꿀 때紧张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紧张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紧张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나는 끈질기게 물건을 팔려는 사람에게 거절을 하려할 때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누군가를 지목해야 할 때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잘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수줍음을 탄다.	①	②	③	④	⑤
29.	친구들이 나 몰래 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과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	①	②	③	④	⑤
33.	별로 친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 겁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4.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할까봐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하기가 겁난다.	①	②	③	④	⑤
40.	다른 사람에게 뭘 같이 하자고 부탁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답해(V표시)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친구들과 함께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게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친구들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친구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9.	좀 더 자주 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친구들은 요즘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치 혼자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환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친구들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염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 친구들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나의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나의 어려움이나 근심거리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만약 내 친구들이나 나에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잘 읽고 해당 번호 위에 V로 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작성해주길 바랍니다.

1. 여러분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현재 학년은?            ① 5학년        ② 6학년
  
3. 아버지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2년)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④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4. 어머니 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2년)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④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5. 현재 여러분의 가족형태는?  
① 핵가족  
② 한부모가족  
③ 대가족  
④ 조손가족  
⑤ 기타
  
6. 형제, 자매의 수는?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7.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미만    ③200~300만원 미만  
④300~400만원미만    ⑤400만원 이상
  
8. 본인의 종교는?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